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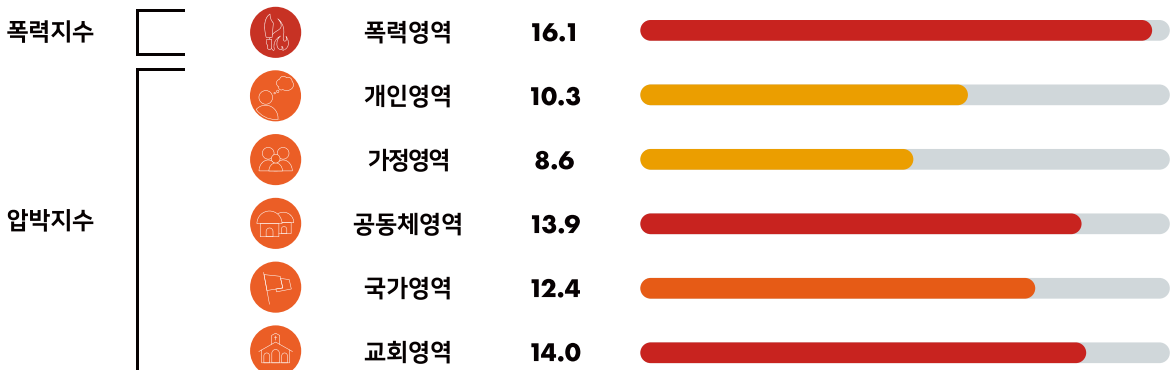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중앙아프리카공화국 (CENTRAL AFRICAN REPUBLIC)

기독교 박해지수
22위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 (6x16.7=100)

중요한 발견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이미 취약한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이웃 수단의 분쟁이 외부 압박을 더하고 있다. 수단에서 폭력이 격화되면서 그것이 중앙아프리카공화국으로 확산될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취약한 주민들, 특히 기독교인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국가 권위의 붕괴가 광범위한 무법 상태를 조장했다. 무장 단체, 부패한 관리, 지하드주의 세력은 이러한 공백을 악용하며, 종종 기독교인들을 표적으로 삼는다. 교회들은 약탈당하거나 파괴되었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기독교 지도자들은 위협, 구금 또는 암살에 직면한다. 여성과 청년들은 착취와 학대에 특히 노출되어 있다. 무장 세력에 의한 종교적·민족적 폭력으로 수천 명의 기독교인이 강제 이주를 당했다. 많은 이들이 보안이나 지원이 거의 없는 과밀한 수용소에서 살고 있다. 북부와 외딴 지역에서는 무슬림 배경의 기독교 개종자들이 신체적 폭행, 강제 고립, 가족의 거부에 직면한다. 이러한 학대는 대체로 처벌받지 않아 두려움과 무력감을 강화한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기독교 공동체는 국가 기능의 실패와 무장 세력의 적대 사이에 갇힌 채, 점점 더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CENTRAL AFRICAN REPUBLIC)

국가 정보

지도자 : 포스탕아르상주 투아데라 대통령

인구 : 6,097,000명

기독교인 수 : 4,470,000명¹

주요종교 : 기독교

정부형태 : 대통령제 공화국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4,470,000	73.3
무슬림	929,000	15.2
민속 종교	640,000	10.5
기타	58,000	1.0
	합계	100%

출처²

1960년 독립 이후 중앙아프리카공화국(CAR)은 무장 단체, 민족·종교 파벌, 목축민과 농민 공동체 사이의 복합적인 긴장으로 촉발된 폭력에 시달려 왔다. 전환 점은 2013년에 찾아왔다. 당시 주로 무슬림으로 구성된 셀레카(Séléka) 연합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종파 갈등과 자위 단체, 특히 반(反)발라카(anti-Balaka)의 보복이 촉발되었다. 반(反)발라카 전투원들은 흔히 기독교인으로 분류되지만, 대부분 아프리카 전통종교를 따르며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규탄을 받아 왔다. 2016년에 선출된 포스탕아르상주 투아데라 대통령은 국가 화해를 우선 과제로 삼았고, 이는 2019년 14개 무장 단체가 서명한 정치 평화 협정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협정은 2020년 선거를 앞두고 붕괴되었고, 폭력은 재개되었다. 수도 방기(Bangui) 외부에서 정부는 거의 통제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토 대부분은 무

장 파벌들 사이에 분할되어 있다. 이러한 분열은 종교 박해와 통치 상황을 감시하는 일을 어렵게 만든다.

대통령이 2023년에 제안한 개헌안은 대통령 임기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정치적 불안을 촉발했으며, 권위주의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시민사회 단체와 야당은 탄압에 직면했다. 한편 르완다, 아프리카 군단(Africa Corps)으로 대체되었거나 재편된 바그너 그룹, 차드 군대 등 외부 행위자들의 주둔도 확대되었다. 일부 반군 파벌은 현재 이슬람 국가 수립 요구를 포함한 외국의 의제와 연계되어 있으며, 이는 상황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기독교인들은 위험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2016년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독교인과 무슬림의 관계가 대체로 평화롭지만, 기독교인들은 구 셀레카 전투원들과 반(反)발라카 단체 양측으로부터 폭력을 겪고 있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이들은 종종 사회적 배제나 폭력에 직면한다. 무슬림이 다수인 지역에서는 교회와 기독교 상징물에 대한 공격이 보고되었다.

2025년까지 정부군과 반군 단체 사이의 충돌이 계속되면서 사상자와 광범위한 강제 이주가 발생했다. 수단의 지원을 받는 반군의 개입에 대한 보고도 증가하고 있어, 이 분쟁에 지역적 차원이 더해지고 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이제 불안정한 이웃 국가들에 둘러

¹ Gina A. Zurlo, ed.,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5년 4월 열람

² 기타(Other)는 합계가 100%가 되도록 하기 위해 표에 개별 항목으로 제시되지 않은 나머지 모든 범주를 의미한다:

Gina A. Zurlo (ed.),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5년 4월 열람-오픈도어 추정치를 반영하도록 수정.

싸여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위기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기독교인들, 특히 개종자들과 분쟁 지역에 있는 이들은 정치적 혼란, 무장 세력의 폭력, 악화되는 인도 주의적 상황 사이에 갇힌 채 계속해서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다. 2025년 7월 26일, 포스탕아르상주 투아데라 대통령은 임기 제한을 폐지한 2023년 개헌 국민투표 이후, 다가오는 2025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 발표는 권력 집중과 그것이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민주적 통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기독교인에 대한 권리 침해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북부와 동부 지역에서 가장 심각하다. 이 지역에서는 기독교에 적대적인 무장 단체들이 상당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다. 여러 사례에서 기독교인 거주지로 알려진 마을들이 표적이 되어 약탈당했다. 수단 인근의 동부 국경 지역은 지하드주의 세력의 국경 침투로 인해 특히 불안정하며, 이로 인해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 국가 안보의 부재와 민족·종교적 긴장이 결합되면서, 기독교인들이 지속적인 박해에 취약해지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정의나 보호를 구할 수 있는 수단도 거의 없다.

누가 영향을 받는가?

해외 출신 기독교인 공동체

이 범주는 WWL 점수 산정 및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

로마가톨릭교회는 가장 큰 교단으로, 많은 교회, 학교,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셀레카 쿠데타 당시와 그 이후 많은 가톨릭 시설이 약탈당했다. 평화를 옹호하고 무슬림과 기독교인 민간인 모두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교회는 그 결과 자주 공격의 표적이 되어 왔다.

기독교 개종자

이슬람에서 개종한 이들은 신앙을 철회하라는 가족과 사회의 강한 압박에 직면한다. 특히 무슬림이 다수인 북부 지역에서는 폭력적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개적으로 예배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복음주의와 오순절 교회 공동체는 구 셀레카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아 왔다. 이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들은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새로운 신자들을 끌어들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박해와 차별의 주요 원인

이슬람주의적 억압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이슬람주의적 억압은 무슬림이 다수인 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곳에서는 기독교인, 특히 이슬람에서 개종한 이들이 뿌리 깊은 적대애에 직면한다. 개종자들은 위협, 괴롭힘 또는 신체적 폭력을 통해 신앙을 철회하라는 압박을 받으며, 이러한 압박은 종종 자신의 가족과 공동체에서 비롯된다. 교회 출석이나 성경 소지와 같은 공개적 기독교 신앙 표현은 강하게 억제되며, 보복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 기독교 개종자들은 자신의 공동체나 가족 정체성을 배신한 사람으로 취급된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노출과 박해를 두려워하며 신앙을 은밀히 실천하도록 강요받는다.

조직화된 부패와 범죄

도시화가 비교적 최근에야 진행된 모리타니의 전통적 부족 사회에서는 민족적 긴장과 종교적 긴장이 뒤섞여 있다.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하면, 그 개인은 가족과 정부의 압박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부족이나 민족 집단 전체로부터 집단적 수치와 박해에 직면한다. 여전히 민족성과 연결되어 있는 노예제는 이러한 분열을 더욱 악화시키며, 노예제를 옹호하는 이들은 이를 이슬람을 통해 정당화한다. 노예제 반대 운동은 이슬람주의 집단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모리타니에 거주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 기독교인들은 인종적 차별과 종교적 차별을 모두 겪는다.

조직화된 부패와 범죄

범죄 네트워크와 구조적 부패는 기독교인 박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범죄 조직처럼 활동하는 무장 단체들은 교회를 상습적으로 약탈하고, 교회 공동체를 갈취하며, 목회자들을 위협한다. 방기와 같

은 도시 지역에서는 등록된 교회와 비공식 교회 모두 보호비를 내라는 압박을 받거나 폭력의 위협에 직면한다. 일부 단체가 종교적 이익을 수호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기회주의적 동기를 드러낸다. 처벌받지 않는 분위기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기독교인들은 자주 학대에 가장 취약한 집단에 속한다.

씨족 억압과 결합된 민족·종교적 적대

박해는 또한 민족 정체성, 전통 신앙, 씨족 간 경쟁이 교차하는 지점에서도 발생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조상 숭배적 종교 관습에 저항하는 기독교인들이 사회적 배제나 보복에 직면한다. 바아카 피그미족(Ba'aka Pygmies)과 같은 소수 민족은 강제 노동에 직면하며, 약한 씨족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무장 단체에 강제로 편입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러한 중첩된 억압은 주변화를 심화시키고 취약성을 높이며, 신앙에 기반한 박해를 더 넓은 민족적·문화적 억압 구조와 분리할 수 없게 만든다.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여성

수년간의 분쟁으로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기독교 여성과 소녀들은 강간, 납치, 인신매매, 강제결혼에 매우 취약해졌다. 이러한 행위는 반군 단체들이 공동체에 공포를 조성하기 위한 전쟁 무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생존자들은 낙인, 트라우마, 때로는 임신에 직면하며, 이로 인해 많은 가족들이 “보호”를 명목으로 딸들을 결혼시키기도 한다. 소녀들은 학교에 가는 길에 납치될 위험에 처해 있어 교육을 받는 데 제약을 받는다. 개종자들은 가택 연금, 강제결혼, 또는 자녀와의 분리 직면할 수 있다. 국내실향민 수용소에서도 기독교 여성들은 착취와 학대에 계속 노출되어 있다.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납치
- 사회적 공동체·네트워크 접근 차단
- 종교적 복장 규정 강요
- 강제이혼
- 강제결혼
- 거주지 혹은 국가를 떠나도록 강요

- 인신매매
- 폭력 - 사망 / 신체적 / 심리적 / 성적

남성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기독교 남성과 소년들은 처형되거나 납치되거나 반군 단체에 강제로 편입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이들이 금광과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노예 노동에 이용되며, 바그너 용병들은 살해와 납치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되어 왔다. 목회자들은 특히 표적이 되며, 간첩 혐의로 거짓 고발을 당하거나, 예배 중 공격을 받거나, 납치되거나 살해된다. 시장과 상권은 이슬람 지도자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은 기독교인이 소유한 상점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거나 이를 약탈하여 가족들을 빈곤으로 몰아넣는다. 국가 군대 안에서도 차별이 계속되어 기독교인들은 주변화되고 있다. 폭력, 강제 징집, 경제적 억압은 가족들을 파탄에 이르게 한다.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납치
- 상속권·재산권 박탈
- 양심에 반하는 군대·민병대 징집 및 복무 강요
- 폭력 - 사망 / 신체적 / 심리적



월드 와치 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6	22	75
2025	27	72
2024	28	70
2023	24	70
2022	31	68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점수는 3점 상승했으며, 이는 주로 국가 영역 점수가 9.583점에서 12.431점으로 급격히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상승은 중앙정부 내부 세력을 포함하여 주요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자들의 권력 강화가 반영된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주로 국가가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압박에 직면한다. 무장 단체들이 광범위한 지역을 통제하고, 이동을 제한하며, 이동 중인 사람들을 갈취하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정치적 반대자로 취급한다. 학대 사례는 국가 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재건 자원은 공동체들에 불균등하게 전달되어 압박을 더욱 심화시킨다.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 **교회와 기독교인 재산 표적화:** 무장 단체들은 점점 더 교회와 기독교인 재산을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종교 건물이 파괴되고 기독교인이 소유한 자산이 약탈되고 있다. 이러한 폭력 양상은 많은 기독교 공동체의 삶을 심각하게 방해했으며, 광범위한 두려움과 강제 이주를 초래했다.
- **여성과 소녀에 대한 공격:** 지하드주의 단체들이 통제하는 지역에서 여성과 소녀들은 납치, 강제결혼, 성적 착취를 포함한 폭력의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무장 단체들의 존재는 특히 기독교 공동체의 여성 구성원들에게 극도의 불안정한 환경을 조성했다.
- **기독교인의 강제 이주:** 무장 단체의 지속적인 폭력과 위협으로 인해 많은 기독교인들이 집을 떠나도록 강요 받았다. 이러한 강제 이주는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했으며, 실향민 개인과 가족들은 혼란 속에서 안전과 기본적인 생필품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납치된 기독교인 수	살해된 기독교인 수	교회나 기독교 건물 공격 혹은 폐쇄 건수	강간 및/또는 성적 폭행을 당한 기독교인 수
2026	100*	100*	100*	100*
2025	100*	67	100*	100*

이 표에는 보고 기간 동안 신앙 기반 폭력의 몇 가지 범주만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결과는 해당 국가의 WWL 박해 다이내믹스 보고서의 폭력 섹션을 참조하라. 많은 사건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숫자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하게 세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상징적 반올림한 수치(10*, 100* 또는 1000*)가 표시되며,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동일한 원칙이 상징적인 숫자인 10,000*, 100,000* 및 1,000,000*에도 적용된다.



개인 영역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특히 자신의 가정과 확대가족 안에서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다. 새로운 신앙이 알려지면 이들은 가족에게 버림받거나, 재정 지원이 끊기거나, 이슬람으로 돌아가라는 강한 심리적·정서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무장 단체들이 영토적·이념적 통제력을 행사하는 무슬림 다수 지역인 북부에서는 성경이나 종교 소책자와 같은 기독교 자료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보고에 따르면, 기독교 예배에 참여하거나 종교적 상징물을 소지하거나 교회 모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구타당하거나 살해된 사례가 있다. 많은 개종자들은 노출을 두려워해 작은 기도 모임조차 피하며, 신앙을 비밀리에 실천하도록 강요받는다.

가정 영역

기독교 개종자들은 종종 가족 관계의 붕괴에 직면한다. 배우자 중 한 사람이 개종하면, 개종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라는 압박이 가해지며, 특히 개종한 당사자가 여성일 때 이러한 압박이 더 크다. 상속권은 자주 박탈되어 경제적 생존 기반이 끊어진다. 무장 단체가 지배하는 지역에서는 기독교인 가정의 자녀들, 특히 고아나 부모가 피신한 아이들이 착취, 인신매매, 강제 징집에 극도로 취약하다. 소녀들은 특히 무법 상태의 지역에서 무장 단체와 연계된 나이 많은 남성과 강제결혼을 당할 위험이 더 높다.

지역사회 영역

정부가 통제력을 상실한 무슬림 다수 지역에서는 무장 단체들이 권력 공백을 메우며 샤리아에서 영감을 받은 비공식 규범을 강요하고 있다. 이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지속적인 차별과 사회적 고립에 직면한다. 개종자들은 의료, 식량 지원, 교육 기회 등 기본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무장 단체와 그 지지자들은 기독교인 가정을 감시하며, 모임을 열거나 신앙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일을 위험하게 만든다. 어린 소녀들과 여성들은 특히 납치와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국가 영역

민병대가 통제하는 도로 차단선과 검문소로 인해 기독교인들이 지역 간 이동할 자유가 제한된다. 교회 공동체들 사이를 이동하는 목회자들은 납치나 살해의 위험에 직면한다. 무장 단체들은 많은 지역에서 사실상의 권력자로 활동하며 수천 명의 기독교인을 강제 이주시킨다. 이 단체들은 협박, 갈취, 표적 폭력을 사용해 기독교인의 존재를 억압한다.

교회 영역

국가가 공식적으로 교회를 감시하지는 않지만, 무장 단체들은 기독교 예배를 자주 방해한다. 예배가 급습당하고, 건물이 불태워졌으며, 목회자들이 공격을 받아 왔다. 외딴 지역에서는 공포 분위기 때문에 공개적인 종교 표현을 어렵게 만든다. 폭력의 위험으로 인해 많은 교회 공동체가 지하로 숨어들거나 피신하게 되었다.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다음 국제 조약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3.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 (CAT)
4.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5.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다음과 같은 기독교인의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무슬림 다수 지역의 기독교 개종자들은 신앙을 철회하도록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압박과 폭력을 당한다 (ICCPR 제18조)
-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전한다는 이유로 신체적 공격을 당한다(ICCPR 제18조)
- 기독교인들은 신앙 때문에 살해당한다(ICCPR 제6.1조)
- 기독교 여성과 소녀들은 신앙 때문에 강간과 성적 학대를 당한다(ICCPR 제7조)
- 여성 기독교 개종자들은 납치되어 무슬림 남성과 강제로 결혼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ICCPR 제23조, CEDAW 제16조 및 ICESCR 제10조)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다른 종교 소수자들의 상황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기독교인들이 광범위한 박해에 직면하고 있지만, 무슬림 소수집단 역시 표적이 되어 왔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정부군과 바그너 그룹 요원들은 이맘과 풀라니족(Fulani) 목축민을 포함한 무슬림들을 자의적으로 구금하고 학대했다. 이에 대응하여 현지 무슬림 공동체들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분쟁의 주된 표적은 아니지만, 소규모 종교 소수집단은 긴장이 여전히 높은 지역에서 국지적인 적대와 불안정에 직면하고 있다.



오픈도어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사역

오픈도어는 현지 동역자 및 교회들을 통해 상당한 기간 동안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활동해 왔다. 2013년부터 우리의 프로그램은 2013년 3월 이슬람 극단주의 셀레카 세력의 쿠데타 이후 위기 속에 놓인 교회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 이후 현지의 현실은 다시 변화했으며, 과거 적대 관계에 있던 세력들이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결합했다. 교회는 여전히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비전은 박해받는 교회가 전인적인 회복탄력성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구성원들의 필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은 다음을 포함한다.

- 박해 대비와 타문화권 개종자의 통합
- 사회·경제적 기회, 문해 교육, 제자훈련을 통한 청년 역량 강화
- 심리사회적 지원 및 정의 구현 프로젝트



이 보고서에 관하여

- 이 국가 보고서의 내용은 오픈도어 인터내셔널(Open Doors International)의 조사 부서인 월드워치리서치(World Watch Research, WWR)가 수행한 상세 분석에 근거합니다. 이 보고서는 무료로 사용 및 배포할 수 있으나, 출처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표기해야 합니다: © 2026 Open Doors International.
- 50개 모든 국가 보고서와 WWL 산정 방법 (방법론)의 최신 업데이트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WL 2026 보고 기간은 2024년 10월 1일~2025년 9월 30일입니다.

** 이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사진은 설명을 위한 예시 이미지입니다.*